



2005년 1월 30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의 에이즈 수직감염률이 거의 소멸되어 간다고 보고 했다. 1990년대에는 일년에 약 2,000건이 발생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약 20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률은 더욱 낮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수직감염률이 낮아진 이유는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awareness)이 향상되면서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산전 진찰을 철저히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에이즈 역학에서 중요한 점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 특히 흑인여성들 사이에서의 에이즈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점인데, 이는 아들이 산전진찰을 통하여 에이즈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수직감염률은 반대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익명검사소 다수

에이즈는 전염성 질환이므로 매개체(vector)가 있어야 감염이 이루어지며,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매개체의 조절(control)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에이즈 확산의 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숨어있는 감염인은 자신의 감

염사실을 모른 채 전염된 경로와 똑같이(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익명검사(Anonymous testing)란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분이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는 검사이며,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대상자만이 알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에 편견과 차별이 크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익명검사를 원하고 있으며, 고위험행동 이후에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익명검사를 선호하며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도 익명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에이즈 검사 전후 상담은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담 중심 이론인 “내담자 중심”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검사받는 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하기 위하여 “Anonymous HIV testing center”라고 구글 검색창에 치니 83,900개의 결과가 나왔다. 이곳에서 쉽게 미국의 어디에 있는지 간에 익명검사소를 찾을 수 있었다. 즉,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의 익명검사소를 알려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병원이나 민간단체, 보건소, 대학의 양호실 등 각 주의 어디에서든 익명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

일반적으로 검사실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다르게 디자인 되어있어서 검사받는 이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도록 하고 있다. 익명검사는 최소한의 인력이 상담과 검사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래피드 검사법으로 하는 경우와 검사결과를 24시간 이후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즈 검사법도 내담자의 편리를 위하여 구강내의 점막을 이용한 검사나 손가락 끝에서 소량의 파를 내어 하는 검사나 소변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고, 검사결과를 확인하기에도 내담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래피드 검사법을 권하며, 익명검사실도 접근성이 많은 장소에 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시 예방상담과 비밀보장 최우선

미국 CDC에서는 1986년에 처음으로 HIV CTR (Counseling, Testing, and Referr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병원이나, 보건소, 민간단체에서 질 좋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HIV 예방 상담과 익명성 혹은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¹⁾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다. 1994년 이전 가이드라인에는 검사 전후 상담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나, 검사 후에 결과를 알기 위하여 돌아오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검사 전 상담으로 위험요소 감소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필자의 경험을 나누자면, 일단 내담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에이즈 상담을 신청해 왔고, 내담자가 원하는 바가 익명검사임을 알게 되었다. 내담자가 사는 곳이 플로리다였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웹 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쳐서 알아 낸 성병·에이즈 익명검사소를 알아내어 이메일로 익명 검사소를 알려주었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를 통하여 이름과 연락처 혹은 이메일만 가지고 검사 약속을 정하고 약속한 날에 클리닉이나 의무실 혹은 민간단체에 가서 익명검사를 받은 후 그 이틀 날 전화를 걸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물론 워크-인(Walk-in) 검사도 상담소에 따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검사실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다르게 디자인 되어있어서 검사받는 이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도록 하고 있다.

익명검사는 최소한의 인력(병이) 상담과 검사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래피드 검사법으로 하는 경우와 검사결과를 24시간 이후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에이즈 예방사업의 실효로 에이즈 신규 감염률도 안정화 되고 있고 에이즈 수직감염률도 극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CDC에서 1986년부터 권장해 온 내담자 중심의 상담과 서비스로 일반대중의 접근성을 최대화 한 익명검사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참고 | 익명검사소가 설치된 곳

- ▶ 청소년 클리닉, 학교 양호실
- ▶ 민간단체
- ▶ 동성애자 클리닉
- ▶ 보건소, 무료 HIV 검사소, 아웃리치 프로그램
- ▶ 교도소
- ▶ 재활센터, 가족계획상담센터
- ▶ 응급실
- ▶ 산부인과 클리닉, 직장내 양호실
- ▶ 산부인과 클리닉, 여성 클리닉
- ▶ 성병 클리닉
- ▶ 결핵 클리닉

1) Confidential testing : 검사 결과와 더불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보관된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검사.

2) Walk-in clinic : 미국은 대부분 병원이나 클리닉을 방문 서 사전 약속을 하고 진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약속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